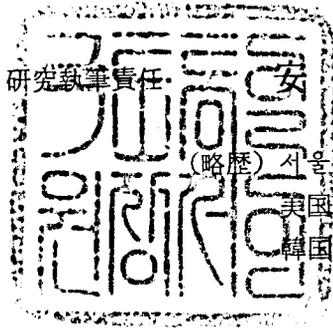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 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與件

日本の 國內政治勢力의 動向과 對韓半島政策展望



秉 萬

(略歷) 서울大法大卒(1964)

美國 플로리다 大學校 政治學博士(1974)

韓國 外國語大學教授(1975 -)

刊行責任

李 壽 一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目 次

I. 序	1
II. 日本의 既存立場	3
III. 日本의 國內政治勢力의 變動	13
IV. 日本의 対応政策 展望	21
V. 우리 의 対応策	31

目 录

第一章 绪论 1

第二章 研究背景及意义 3

第三章 研究方法与思路 5

第四章 研究内容 7

第五章 研究结论 9

第六章 参考文献 11

第七章 附录 13

第八章 致谢 15

I. 序

美國의 大統領 지미 카터가 駐韓美國撤収에 관한 政策發言을 한 이래 韓國의 既存安保觀은 불가피하게 修正되지 않으면 안되는 狀況에 이르렀다. 그런데 日本政府는 傳統的으로 韓國이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고 보아왔던 만큼 이와같은 狀況變化에 대하여 민감한 反應을 보이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日本이 어떠한 式의 反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安保의 性格은 變化될 수도 있는 것이다. 換言해서 美國이 日本과의 現存友好關係를 破壞하지 않는 範圍 내에서 極東에서의 政策變化를 試圖할 것이라는 前提를 세워 볼 때, 앞으로 日本의 움직임은 駐韓美軍撤収의 形態 및 內容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安保問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推定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첫째로 日本의 國內事情이 급변하고 있는 차제에 그것이 우리의 駐韓美軍撤収問題와 관련하여 어떠한 利害의 方向으로 進前될 것인가를 判斷하는데 研究의 目標을 두었다. 둘째로 日本의 國內情勢의 變動과 駐韓美軍의 撤収問題가 구체적으로 日本의 對外政策方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豫診해 보고자 한다. 이와 關聯하여 日本의 對美, 對中·蘇 및 對北傀政策의 變化可能性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셋째로 우리와의 關係를 日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改善해 나갈 것인가를 推定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對應策을 강구하는데 研究의 目標을 두었다.

위의 分析을 위하여 本研究에서는 日本의 國內政治勢力의 變動과 駐韓美軍의 撤收를 獨立變數로 把握하였으며 日本의 對外政策의 變化를 이에 수반되는 從屬變數로서 파악하였다.

II. 日本의 既存立場

日本의 國內政治變動이 駐韓美軍의 撤収問題와 關聯하여 그들의 對外政策上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把握하기 위하여는 우선 日本이 어떠한 式의 立場을 採하여 왔었던가를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即, 日本의 政府·野黨 및 一般國民들이 기왕에 취하였던 政策性向을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內的 政治勢力構造上의 變化가 있을 때 어떠한 方向으로 既存立場이 變更될 것인가를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1) 保守派 內閣

戰後 自民黨의 保守派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던 日本政府는 그들의 安保와 關聯하여 一面 極東에서의 美軍을 자체방위를 위한 방과체로서 간주해 왔으며 他面은 中共과 蘇聯을 軍事上의 假想의 敵으로서 設定하여 왔다. 이와같은 安保的 大前提 下에서 日本政府는 傳統的으로 韓國이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¹⁾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根拠가 위의 事實을 立証해 준다.

註 1) 韓國과 日本 그리고 美國의 相互安保關係에 관한 것으로 Herbert P. Bix, "Regional Integration: Japan and South Korea in America's Asian Policy", in Frank Baldwin (ed.), Without Parallel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 179-232.

첫째로 韓國은 地政學的으로 蘇聯과 中共의 進出을 막는 防波堤의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비단 現今뿐만 아니라 지나간 歷史를 통하여 繼續 믿어왔던 그들의 見解이다.

둘째로 隣接國으로서의 韓國은 日本과 共히 美國의 軍事的 保護 下에 있다. 따라서 韓國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 防衛意志는 곧 日本에 대한 美國의 意思表明의 一部로서 보는 傾向이 있다.

셋째로 日本은 韓國을 經濟的 利益對象國으로서 重要하게 보는 것이다. 韓國은 美國 다음가는 日本의 輸出對象國이며, 日本政府의 開發借款 및 個人投資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狀況下에서 自民保守派가 이끄는 日本政府가 駐韓美軍의 役割을 日本의 安保와 直結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當然한 結論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닉슨-사토히 공동성명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日本政府의 公式的 立場으로 表明되어 온 바 있다.²⁾ 카아터가 駐韓美軍의 撤收를 선거공약의 일환으로서 들고 나왔을 當時에도 日本政府는 이를 크게 우려하는 立場을 반복해서 表明한 바 있다. 그 후 日本의 미끼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한미군의 撤收를 反對하는 그의 立場을 闡明한 바 있고 당시의 日本 外務相 고사카 역시 미끼首相과 동조하는 發言을 하였으며 워싱턴 駐在 日本大使도 駐韓美軍의 極東安保를 위한 重要性을 갈파한 바 있다.

現在의 후쿠다首相은 비록 保守派에 의한 弱體 內閣을 이끌어

註 2) Washington Post, 1969年 11月 22日 字 기사참조

나가고 있으나 그의 뉴우스위크誌와의 會見에서 駐韓美軍의 즉각적 撤収를 反對한 바 있고,³⁾ 지난 3월에 있었던 카아터-후쿠다 會談에서도 駐韓美軍의 撤収를 韓半島의 安定 및 日本의 安保와 관련하여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⁴⁾ 마지막으로 일본 방위청은 駐韓美軍撤収의 可能性에 対処하기 위하여 日本의 自体 兵力을 增強시킬 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報道된 바 있다.⁵⁾

위의 사실을 綜合해 볼 때 保守派가 이끄는 日本政府의 傳統的 安保觀은 最近에 와서 약간의 變質은 있었다 해도 (이에 關하여는 後述하겠음) 보장없는 駐韓美軍의 撤収에 對하여는 根本적으로 反對하는 立場에 있으며 日本의 安保를 韓國의 安定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음이 分明하다.

(2) 左翼 및 革新系列

日本의 政界에서 美·日安保條約에 反旗를 들고 있는 日本人들은 同時에 美軍이 韓國에 주둔하는 것도 계속 反對하여왔다. 이들은 주로 日本社会党和 日本共産黨員들이다. 그들의 政治理念이 소위 左翼路線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韓國보다는 北傀를 지지하며, 北傀가 韓半島를 支配한다고 해서 日本의 安保에 問題가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註 3) 東亞日報, 1977年1월14일자 참조.

4) 東亞日報, 1977年3월23일자 참조.

5) 東亞日報, 1977年1월14일자 및 1977년6월3일자 참조.

따라서 그들은 駐韓美軍이 日本安保를 오히려 沮害시키는 要因으로 把握하여 왔다. 즉 日本은 韓國戰爭勃發時 美國에 의하여 戰爭에 介入하도록 強要받을 危險이 있고, 日本이 韓國과 經濟的 紐帶關係를 強化하면 할수록, 이와같은 危險에 빠져 들어갈 可能性이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結果로 이들은 美國과의 相互 安保條約關係를 파기할 것을 主張하며 韓國으로부터 美軍이 撤收할 것을 強調하고 日本은 中立路線을 堅持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革新系列로서 把握되고 있는 公明黨은 左翼系列보다는 완만한 姿勢에 있다고 하겠으나 根本的으로는 美·日安保條約이 폐기되고 日本은 中立路線을 択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特히 1972年 總選에서 campaign을 經驗한 뒤 그들은 美·日安保條約을 即時 廢棄할 것을 主張한 바 있다. 그리고 1975年 黨大會 以後에 廢棄를 위해 外交交渉을 第一로 한다고 그 表現을 緩和시키고 있으나 그들의 日本安保觀自体에는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⁶⁾

이상을 綜合해 볼 때 左翼 및 革新系列은 保守自民黨과 根本的으로 相異한 安保觀을 가지고 있음이 發見된다. 첫째로 中共과 蘇聯을 假想의 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로 美·日安保條約은 오히려 日本의 安保를 危脅하는 要因으로 把握하였다. 셋째로 駐韓美軍은 早速히 撤收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韓國보다는 北傀와 國交正常化를 追求하는 것이 그들의 安保利益에 合당한 것으로 보았다.

註 6) 朝鮮日報, 1976년 12월 9일자, 참조

(3) 日 本 國 民

日本國民들이 그들의 安保와 關聯해서 駐韓美軍의 撤収問題를 어떻게 보아 왔는지에 대한 体系的인 輿論調査가 동경 신조호센터에 의하여 1975년 11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實施된 바 있다.⁷⁾ 이를 根拠로 하여 日本國民의 安保上的 立場을 다음의 네가지 観点에서 把握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北傀가 韓國을 占領하는 경우 日本은 어느 程度로 安保上的 危脅을 받게 될 것인가의 質問에 대하여 応答者의 50%가 크게 혹은 상당한 정도로 危脅을 받게 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21%는 危脅을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머지 29%는 잘 모르겠다고 答復하고 있다. (表1 参照)

< 表 1 >

“北傀가 韓國을 占領한다면 日本의 安保에 얼마나 危脅을 줄 것이라고 貴下는 생각하는가?” (応答者 1,638名)

크게 危險을 줌	14 %
어느 정도 危險을 줌	36 %
약간 危險을 줌	18 %
전혀 危險을 주지 않음	3 %
모르겠음	29 %
計	100 %

註7) U.S.Information Agency, Japanese Opinion on Security Links with South Korea, Research Memorandum (January 16, 1976) 참조.

勿論 応答者の 過半数가 日本의 安保를 韓國의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으나 나머지 半数는 이와는 反對로 혹은 不確實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事實이 關心을 끌도록 만든다. 이는 다음의 質問에서 더욱 뚜렷하다.

둘째로 美軍이 韓國에 주둔함으로써 韓半島에서의 戰爭防止에 貢獻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質問에서 応答者の 32%가 戰爭可能性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7%는 오히려 戰爭의 可能性을 增加시킨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8%는 駐韓美軍이 戰爭防止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나머지 44%는 모른다는 對答을 하였다. (表 2 參照)

< 表 2 >

“貴下의 생각으로 駐韓美軍의 存在는 北傀가 韓國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보는가 혹은 증가시킨다고 보는가 또는 귀하의 생각으로 주한미군의 存在가 아무런 效果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자 1,638名)

크게 감소시킨다.	10%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	22%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	9%
크게 증가시킨다.	8%
거의 효과가 없다.	8%
모른다.	44%
計	101%

輿論調査當時가 곧 인도차이나 事態의 直後였고 北傀의 挑發可能性이 高潮되었던 時機였고 보면 위의 結果는 日本人들이 韓國問題에 대하여 얼마나 無關心한가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더우기 전체의 25%가 駐韓美軍을 오히려 危險한 存在로서 파악하거나 別로 重要的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事實은 日本의 左翼 및 革新系列의 安保觀에 同調하는 日本人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는 北傀가 韓國을 공격하는 境遇 駐日美軍基地 (오키나와 包 含)를 이를 위하여 提供하는 것에 同意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놀랍게도 應答者의 64%가 (오키나와의 경우엔 62%) 駐日美軍基地의 使用에 거부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직 6% (오 키나와는 7%)만이 條件없이 이에 찬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3 参照)

< 表 3 >

“北傀가 韓國을 攻擊한다면 實下는 韓國의 防衛를 위하여 駐日美軍基地를 使用하는데 贊成할 것인가 혹은 反對할 것인가? 오키나와에 있는 美軍基地의 使用에 對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 (應答者 1,638名)

	주일미군기지	오키나와
찬성한다.	6%	7%
조건부로 찬성한다.	10%	11%
반대한다.	64%	62%
모른다.	19%	20%
計	99%	100%

이는 만일 韓國에 戰爭이 勃發하는 境遇 日本의 도움은 勿論이요, 日本에 있는 美軍의 도움을 받는데 있어서 까지도 큰 어려움이 存在하리라는 것을 쉽게 豫想하게 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南北韓에 대한 日本人의 見解를 알아보는 質問으로서 南韓과 北韓은 各各 日本과 根本적으로 얼마나 利益을 같이하고 있는가의 設問이 있었다. 北韓의 경우 應答者의 9%가 日本과 利益을 같이한다고 答答하였고 55%는 日本과 약간 혹은 크게 다르다고 反應을 보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應答者의 36%가 日本과 利益을 같이한다고 보았으며 29%가 日本과 약간 다르다는 쪽으로 見解를 表明했다. (表 4 參照)

< 表 4 >

“貴下の 見解로 우리나라와 北傀間の 基礎的 利益關係는 相互一致하는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不一致하는 것으로 보는가? 韓國과는 어떠한 關係에 있다고 보는가?” (應答者 1,638 名)

	北 傀	韓 國
아주 많이 일치한다.	1 %	8 %
상당한 정도로 일치한다.	8 %	28 %
약간 불일치한다.	22 %	20 %
아주 불일치한다.	33 %	9 %
모른다.	36 %	36 %
計	100 %	101 %

이 結果를 놓고 보면 日本人들이 北傀보다는 우리 쪽에 더 相互利益的 一體感을 느끼고 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以上の 資料를 綜合해 볼 때 다음과 같은 點을 把握할 수 있다.

日本人들은 北傀보다는 우리와의 利益關係를 重要視하는 傾向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相當數가 北傀의 南侵時 日本의 安保에는 影響이 없으리라고 判斷하고 있다. 이 점은 日本의 保守自民黨과 根本적으로 다른 立場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駐韓美軍의 戰爭防止能力에 대하여 確信을 가지고 있지 않는 傾向이 있으며 혹시 韓半島에 戰爭이 터지더라도, 日本은 이에 무슨 形態로도 協調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라고 하겠다.

(4) 小 結 論

駐韓美軍撤収에 대한 日本人의 立場은 政府와 左翼·革新系列 그리고 一般大衆間에 各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考察하였다. 日本政府는 駐韓美軍撤収의 問題를 日本自體의 安保와 關聯하여 慎重하게 檢討하고 있는 反面, 日本의 左翼·革新系列의 政黨人들은 駐韓美軍의 撤収를 오히려 當然한 것으로서 主張하여 왔다. 한편 日本의 一般大衆은 日本政府의 見解와 밀착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贊反의 兩極化現象 乃至는 不確實한 立場을 취하고 있음을 보았다.

日本과 같이 一般大衆의 參與를 政治過程의 核으로 삼고 있는 狀況에서 政府가 大衆의 積極的인 支持를 얻지 못하고 反對黨들과의

지속적인 妥協을 거치지 않고서는 強力한 政策을 決定하고 執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후쿠다內閣은 어느 때 보다도 弱体内閣임이 드러났고, 그만큼 어느 때 보다도 反對黨들과 妥協하지 않으면 안되는 立場에 오게 된 것이며 國民의 反應을 어느 때 보다도 예민하게 檢討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立場에 놓인 것이다. 이를 보다 면밀히 分析하고, 弱体 후쿠다內閣이 어떠한 方向으로 政策變化를 試圖할 것인가를 診斷해 보기로 한다.

Ⅲ. 日本의 国内政治勢力의 變動

日本이 앞으로 韓國과의 關係에서 安保上 어떠한 役割을 할 수 있는나를 알기 위해서는 保守自民党内閣이 어느 程度로 独自の이고 도 強力한 政策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나의 여부를 判斷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自民党内閣에 대한 國民支持의 幅이 넓어야만 保守内閣은 그들의 傳統的인 安保政策을 밀고 나갈 수 있겠고, 議院内에서 압도적 多數議席을 차지하고 있어야만 政策主導의 立場을 견지할 수 있으며, 自民党内閣의 結束力이 강해야만 保守内閣은 強力한 리더십을 行使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1976년 12월의 選舉는 自民党内閣의 豫測과는 달리 保守与党으로서의 位置確保에 커다란 問題點을 안겨 준 것이다. 이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選舉結果에 나타난 國民支持度

1976年度 末의 衆議員選舉結果를 보면 우선 選舉民들의 投票指向性에 큰 變動이 없었다는 事實을 알 수가 있다. 公明党内閣이 1972年度의 8.4%, 支持率에서 10.9%로 上昇되었을 뿐 그 外의 政黨들은 오히려 약간의 下向勢를 보여주는 선거라는데 特徵이 있다. 그리고 新自由클럽이 選舉前 自民党内閣으로부터 脫黨한 小數의 소장파(5人의 議員)에 의하여 結成된 이래 이번 선거에서 크게 부상했다는 것이 注目할만한 일이다. (表5 參照)

<表 5 >

年度別 得票率 推移(%)

年度 \ 政党	自 民	社 会	公 明	民 社	共 産	新自由
1958	57.8	33.9			2.6	
1960	57.6			8.77	2.9	
1963	54.7	29.3		7.37	4.0	
1967	48.8	27.9	5.4	7.4	4.76	
1969	47.6	21.4	10.9	7.7	6.8	
1972	46.9	21.9	8.4	7.0	10.5	
1970	41.8	20.7	10.9	6.3	10.4	4.2

(朝鮮日報 1976 年 12 月 7 일자 참조)

가장 注目을 끌게하는 投票結果는 역시 自民党的의 경우에서 發見된다. 自民党은 1958 年 이래 계속 最多數 得票에 의한 与党的의 位置를 確保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國民의 支持度가 弱화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1972 年에 비하여 5.1%나 下廻하는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그쳤다는 事實이다. 이것을 新自由클럽의 得票数와 合算해 본다면 1972 年 선거와 別差異 없는 結果라고도 評價할 수 있겠으나 問題는 오히려 自民党에서 빠져나와 이들과 直接對決한 新自由클럽이 크게 지지를 획득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國民들이 自民党的의 內的矛盾을 敏感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더욱 根本的으로는 自民党에 대한 國民

支持의 幅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次期の 参議員選舉에서 自民黨은 더욱 큰 곤혹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며 가까운 時日內에 自民黨主導가 아닌 聯立內閣이 形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同時에 自民黨이 与黨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政策面에서도 既存의 保守路線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고, 政治스타일 面에서도 野黨에 압도하는 姿勢로부터 妥協하는 자세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自民黨의 退潮와 더불어 相對的으로 그 勢力을 強化하게 된 革新系列(社会, 公明 및 共産黨! 이들의 全体得票率은 43.3%로 自民黨을 능가함)이 合勢하여 도전해 올 수 있는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点에서 더욱 重要하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議會内の 勢力變動

衆議員選舉의 結果 獲得하게 된 各黨의 議席數를 보면 더욱 興味있는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自民黨은 1972年度에 265席을 확보했었으나 1976년에는 오직 249席을 차지하여 16席을 잃게 되었고 이는 全体議席의 순수 과반수인 256席에 未達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외에는 共産黨이 前의 39席에서 17席으로 부침하는 結果를 보여주었을 뿐, 기타의 政黨들은 이번 選舉에서 모두 보다 많은 議席을 차지한 것이다. (表 6 참조)

< 表 6 >

政党別 衆議員 議席分布

(1972년과 1976년의 對比)

政党	年度	1972 年	1976 年
自 民 党		265	249
社 会 党		112	123
公 明 党		30	55
共 産 党		39	17
民 社 党		19	29
新 自 由 倶 楽 部			17

(東亞日報 1976 年 12 月 7 · 8 日)

특히 自民党的 保守路線을 크게 공박하면서 革新·中道路線을 들고 나왔던 公明党和 新自由클럽의 浮上은 우리들의 関心을 끌게 한다. 이와같은 議會内の 勢力分布 때문에 自民党은 单独内閣을 形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고 임시변 통으로서 무소속의원의 일부를 당내에 포섭함으로써 不安한 가운데 후쿠다内閣의 出帆을 보게 된 것이다.⁸⁾

註8) 東亞日報, 1976 年 12 月 8 日字 參照.

(3) 후쿠다內閣과 派閥問題

이상 言及한 바와 같이 現 후쿠다內閣의 출범은 一次的으로 國民의 支持度가 弱화된 狀態에서 議會內에서의 不安定한 勢力確保를 基盤으로 하여 나타난 것을 特徵으로 한다. 그러나 保守內閣을 構成한 후쿠다의 本質적인 고민은 自民黨 內의 派閥現狀과 他黨과의 제휴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新自由클럽이 후쿠다內閣과 政策決定面에서 協助的인 것이라는 一般의 豫상을 뒤엎고 新自由클럽이 후쿠다首相이 就任하기 以前부터 反후쿠다宣言을 하였으며⁹⁾ 그 후 후쿠다首相의 구체적인 政策實現過程에서도 계속 反對的인 立場을 견지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韓·日대륙붕 共同開發에 관한 議會內의 비준과정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自民黨이 계속 退潮를 보이고 있는 理由가운데도 가장 심각한 이유는 黨內의 派閥막후정치현상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自民黨의 派閥은 1955년 11월에 自民黨이 結成된 이래 계속 집권해 오면서 醜惡화된 병폐적 현상으로서, 이는 黨內외의 批判의 対象이 되어 왔다. 特히 1976년 12월의 選舉에서 自民黨의 派閥現象은 國民과 政治人들의 主된 論争點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衆議員選舉 이후 各派閥은 계속해서 갈등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派閥의 해체 움직임이 새로운 현상으로 강력히 대두된 것이다.¹⁰⁾ 우선 후쿠다

註 9) 朝鮮日報, 1976년 12월 10일자 참조.

10) 國外日日情報, 1977년 3월 10일, 56호 참조.

(船田)파가 1976년 12월 23일에 자진 해산하고, 미스다(水田)파가 1977년 2월 9일에解散되었으며 뒤이어 現首相이 이끄는 후쿠다(福田)파가 同年 3월 9일에解散되었다. 또한 오히라(大平)파 역시 同年 3월 10일에 해산되었고 다나카(田中)파도 同年 3월 16일부로 해산하였다. (表7 참조)

<表7> 自民党内 派閥現況

派 閥 別	衆議員	參議員	備 考
福田派 (8日会)	53名	22名	77.3.9解散
大平派 (宏池会)	37名	20名	77.3.10解散
旧田中派 (7日会)	43名	41名	77.3.16解散
中曾根派 (新政同志会)	40名	6名	
三木派 (政策同志会)	32名	10名	
椎名派 (交友클럽)	11名	1名	
旧水田派 (巽会)	10名	2名	77.2.9解散
旧般田派 (一新会)	8名	3名	76.12.23解散
石井派 (水曜会)	6名	2名	
無 派 閥	20名	20名	
計	260名	127名	

(國外日日情報 1977.3.01.56号)

이와같은 派閥解體의 움직임은 自民黨 組織性格의 刷新과 1977年 7월에 있을 參議員選舉를 겨냥한 政治的 제스츄어라고 할 수 있거니와 그 實質的인 效果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크게 의문시되는 것이다. 즉 自民黨의 역사는 곧 派閥의 歷史였고 派閥은 단순한 政治集團이라고 하기보다는 個個 政治人들의 政治活動에 必要한 人間的·經濟的 내지는 社會的 結束體이었다는 점에서 實質的 派閥解體는 不可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¹¹⁾ 이와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쿠다內閣 출범 이후 黨을 再整備하고자 하는 努力은 높게 評價할 수 있는 일방, 후쿠다內閣이 그 어느 政權보다도 가장 弱體인 동시에 自民黨 全體가 執權面에서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 小 結 論

후쿠다內閣은 自民黨 계속 집권의 傳統을 이어 받아 형성된 政治體라고 할 수 있으나 이미 분석해 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局面에서 그 弱體性을 크게 露呈하고 있다.

첫째로, 同內閣은 어느 때 보다도 낮은 國民의 支持度 위에서 만들어진 內閣이다.

註 11) 日本政黨의 各 派閥들이 展開하는 政治·經濟活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aul Kevenhörster, *Wirtschaft und Politik in Japan* (Hamburg: Institut für Asienkunde, 1973) 參照.

둘째로, 自民黨은 議會內에서의 勢力確保面에서 크게 弱화된 実體로서 부각된 한편, 中道·革新系列은 相對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 強力한 位置를 確保하고 있다.

세째로, 후쿠다內閣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自民黨은 록하드事件 이래 심각한 派閥對立의 危機에 直面했으며 現今 派閥解體의 手段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 實質적으로는 組織內的 난맥상을 免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保守政府로서의 후쿠다內閣이 內的 問題를 안고 있다는 事實을 駐韓美軍撤収의 이슈와 연결시켜 볼 때, 과연 어떠한 結論이 추출될 것인가는 注目の 對象이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日本國內의 情勢의 變動과 駐韓美軍撤収 問題를 獨立變數로 하여 앞으로 日本이 어떠한 方向의 對外政策을 展開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假說的 추리로써 豫診해 보고자 한다.

IV. 日本의 対応政策 展望

日本의 傳統的인 對外政策方向이 日本政府의 保守성과 함께 歷史的으로 뚜렷이 부각되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現今 후쿠다內閣이 自体内的 취약성 및 革新·共產勢力의 강력한 도전에 임하여 과연 既存政策方向을 고수할수 있는가에는 問題가 대두되고 있다. 特히 駐韓美軍의 撤収가 후쿠다內閣의 새로운 挑戰要因으로서 등장한 現時点에서 同內閣이 과연 어떠한 方向으로 對外政策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는 가장 重要한 関心の 対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는 日本政府의 對美政策, 對共產圈政策(對中, 對蘇, 對北傀 包含) 및 對韓政策의 展開方向을 몇 가지 基本假說에 대한 根拠提示를 통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對美政策

假說 1

保守內閣의 弱化現象은 美國과의 政治的·經濟的 協力關係를 점차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같은 假說은 다음의 세 가지 根拠를 통하여 設定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이미 本稿의 앞 부분에서도 指摘했던 바와 같이 自民黨은 1960년대 이래 계속 退潮 및 分열상황을 經驗했고 이것이 다나카 前首相의 退陣과 더불어 더욱 노골화 되었으며 現 후쿠다體制에 들어서서는 그 弱體性을 가장 크게 드러냄으로써

과연 自民黨 주도에 의한 政策樹立이 앞으로 계속 可能할 것인가가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후쿠다內閣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는 民主社會黨과 新自由클럽과의 제휴를 期待할 수 있는 바, 지금까지의 戰略趨移로 보아 新自由클럽과의 제휴는 完全히 失敗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이와 關聯하여 후쿠다內閣은 過去의 自民黨政府가 보여주었던 정책주도의 立場을 탈피해서 革新 혹은 共產勢力과의 妥協政治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相對的으로 政治的 立場이 強化된 革新·共產勢力은 계속 中立 내지 反美路線을 強化하고 있는 一方, 美國은 오히려 日本을 經濟的 競爭國으로서 견제하는 姿勢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美國과의 政治的 經濟的 協力關係는 계속 둔화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假說 2

美國의 對日安保公約에도 불구하고 駐韓美軍의 철수는 日本으로 하여금 美國에 依存하는 安保政策으로부터 탈피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첫째로, 駐韓美軍撤収와 關聯하여 日本政府는 이를 既定事實化하여 받아들일려는 傾向이 있다. 이는 韓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고 보았던 既存立場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最近 카터-후쿠다

共同声明에서도 明確히 나타난 바 있다.¹²⁾ 日本이 駐韓美軍撤收를 既定事實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態度를 보이는 데는 몇가지 理由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日本이 이를 強力히 反對하는 境遇 美國은 經濟大國으로서의 日本에게 韓國安保를 위한 諸般 經費를 分担토록 要求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同時에 日本内の 革新·共產勢力을 意識한 政府의 미온적 태도로서도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共產圈國家들과의 實利外交를 追求하는 現立場에서 이들에 대한 感情的 對立을 회피하려는 일련의 조치로서도 判斷할 수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巨視적으로 볼 때 日本이 美國에만 偏派的으로 依存하는 既存 安保政策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政策이 轉換될 可能性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註 12) 韓國安保에 대한 美·日共同声明의 變化趨移를 概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69년의 닉슨-사토 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安全이 일본의 安全을 위해 必要하다」고 표현했으며, 1975년의 포드-미키 성명에서는 「한국의 安保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해 必要하며,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安全에 必要하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1977년 카터-후쿠다 성명에서는 「두 지도자는 일본과 동북아시아 전체의 安全을 위한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안정의 계속적 중요성에 유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련의 声明들은 얼른 보기에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1969년의 한·일 安保 直結式의 文句가 이미 1975년의 공동성명에서 부터는 자취를 감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朝鮮日報, 1977. 3.24 日字 참조)

둘째로, 보다 구체적으로 日本방위청은 駐韓美軍 撤収와 관련하여 自体防衛問題를 빈번하게 拳論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日本防衛의 三大 지주는 國民 個個人의 방위의식의 고양, 憲法에 입각한 최소한의 防衛力의 整備, 美國의 핵우산을 前提로 한 美·日安保條約의 踐지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의 主要 軍備政策 동향으로서 포스트4次防(1977-1981, 10兆5千億엔)에 의거 軍事力을 強化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의·增大보다는 質의 向上에 防衛産業의 力點을 부여하고 있다.¹³⁾ 이러한 既存軍事政策 내지는 自体防衛原則이 修正되어야 한다는 것이 防衛庁의 主張이며 同時에 日本内の 極右 및 極左派의 見解이기도 한 것이다. 即, 極右派의 境遇에는 日本이 駐韓美軍撤収를 계기로 하여 美國과의 안보유착관계를 청산하고 軍事大國으로서의 防衛産業의 世界水準化를 主張하고 있으며 核武器의 自体生産까지도 拳論하는 傾向이 있다. 다만, 日本의 國內政治狀況으로 보아 戰略核武器의 本格的 開發이란 現時點에서 開發能力은 있으나 不可能한 것으로서 評價되고 있다.¹⁴⁾ 한편, 極左派의 境遇 駐韓美軍撤収를 계기로 하여 그들의 美·日安保公約 無用論을 더욱 더 크게 들고나올 可能性이 있으며 日本의 安保問題를 軍事的 次元이 아닌 外交的 次元에서 解決하도록 더욱 壓力을 加할 公산이 크다. 이와같은 狀況들을 綜合해 볼 때 駐韓美

註 13) 日本防衛白書, 1976 參照.

14) Zbigniew Brzezinski, The Fragile Blossom : Crisis and Change in Japan(New York : Horper & Row, 1972) p.108 參照.

軍의 撤収는 日本이 美國에만 依存하던 既存 安保政策을 脫皮하도록 할 것이라는 展望을 세울 수 있다.

(2) 對共產圈政策

假說 1

日本의 對內情勢의 變動은 中·蘇에 對한 政治的·經濟的 關與程度를 增加시킬 것이다.

첫째로, 日本의 對中·蘇政策은 美國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把握될 수 있다. 日本의 國內情勢가 美國과의 政治的·經濟的 關與程度를 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逆으로 日本이 對中·蘇 關與程度를 增加시키는 結果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最近 日·蘇漁業協定上에 나타난 協商過程을 보아도, 또한 日·中間의 貿易增進態度를 보아도 이러한 趨勢는 짐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이 中·蘇에 接近하는 過程에 있어, 中·蘇間의 政治·經濟·外交的 競爭關係를 利用함으로써 兩者에 接近하는 一方, 兩者로부터의 經濟的 내지는 戰略的 實利를 追求하고자 할 것이다.

假說 2

駐韓美軍의 撤収는 日本의 對中·蘇 對峙關係를 더욱 促進시킬 것이다.

이와같은 假說은 우선 日本의 立場에서, 韓半島의 戰爭勃發時 中·蘇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日本을 危脅할 수 있는 可能性을 最小

化시키고자 하는 日本의 努力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駐韓美軍의 撤収後 日本이 再式裝을 함으로써 東南亞에 있
어서의 日本의 軍事的 영향력을 增大시킬 것이라는 中·蘇의 우려
는, 一面 中·蘇로 하여금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더욱 推進토록 만
드는 要因이 될 것이고, 他面 日本은 이러한 분위기를 利用하여
中·蘇와의 軍事的 不可侵條約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假說 3

駐韓美軍의 撤収는 日本의 對北僞外交正常화를 보다 促進시킬
것이다.

駐韓美軍撤収의 性格은 窮極的으로 美國이 韓半島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意思表示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觀
點에서 볼 때 日本은 美軍撤収後 韓半島에서의 戰爭可能性을 더욱
크게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日本의 자체안보를 크게 위협받
게 될 수도 있다는 고려하에서 北韓과 南韓을 同時에 우방의 關
係로서 설정하고자 하는 努力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日本은 北僞와의 關係正常화를 위하여 1974年 初부터 보다 본
격적인 經濟 및 文化面에서의 相互交流를 推進한 바 있고¹⁵⁾ 最近

註 15) 1974年에서 1975年 사이에 北韓의 各種 經濟團體가 日本
을 訪問한 회수는 19회에 이르고 있으며 同期間中 北僞의
文化·體育團體가 日本을 방문한 회수는 9회에 이르고 있다.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北傀代議員그룹 대표단을 초청함으로써 北傀와의 政治的 關係의 증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北傀와의 關係개선은 우선 前述한 바의 日本共產革新系列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며 北傀의 對日本 국교정상화 노력에 대한 反應책으로도 되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日本의 自体安保利益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日本政府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推進할 公산이 크다고 보아야 하겠다.

(3) 對 韓 政 策

假說 1

日本의 保守派內閣의 약화현상은 保守勢力의 傳統的 安保觀에도 불구하고 韓國과의 安保연계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위의 두 假說은 日本의 對美政策變化에 관한 假說과 直接 關聯해서 볼 수 있는 假說들이라고 하겠다. 즉, 日本의 傳統的 日・美安保觀이 變化된다는 것은 곧 傳統的 韓・日安保觀도 變化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첫째로, 최근에 論争의 對象으로 되어 왔던 韓日癒着問題는 이를 적극적으로 反對하는 日本의 여론 및 革新系列의 策동속에서 후쿠다內閣이 공식적으로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공식적 자세를 표명했음을 상기해볼 必要가 있다. 또한 우리政府가 韓・美・日安保協議體의 설치를 제안했을 당시에 日本政府가 이를 일축해버렸던 사

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¹⁶⁾ 이와같은 現象들이 美國의 駐韓美軍撤
取 論議와 더불어 더욱 표면화되었다는 事實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日本은 1973년 이래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대륙붕협정
의 비준문제를 최근 해결함으로써 韓國과의 대륙붕공동개발을 위한
기초를 확립한 것이다. 同問題를 놓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대륙붕문제의 法的筋次가 中共의 壓力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는 사실은 韓國과의 經濟的 協力關係를 重視하고
있다는 日本政府의 意思表示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日本이
韓國과의 關係에서 政治·經濟의 두 이슈를 分離시키고자 하는 政
策的 表現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륙붕협정의
비준과정을 보면 韓國과의 經濟協力關係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共產革新系列의 反對에 부딪쳐 日本의 自民黨은
대륙붕문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日·蘇漁業協定の 問題를 업고
들어와서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韓·日關

註 16) 日本外務省은 韓·美·日安保協議體系를 非論理的인 것이라고
論評하면서 ① 駐韓美軍의 撤取問題는 基本的으로는 韓·美
兩國間에 국한된 問題이고, ② 駐韓美軍의 動向은 日本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問題이긴 하나 이에 관해
日本政府가 韓國과 美國을 상대로 따로 따로 協議할 성립
의 것이지 三者一體가 되어 協議할 性質의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동아일보, 1977. 1. 8日字 參照)

係에 더욱 복잡한 政治·外交的 問題가 유발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토록 하여주고 있다.

假說 3

日本國民이 日本의 安保를 韓國과 分離해서 보는 傾向은 위의 政治的 變動過程에 따라서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印支事態直後 韓半島에 戰爭可能性이 고조되었던 당시에 日本의 輿論은 韓半島戰爭이 日本의 安保에 대하여 위협적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본국민의 50% 정도만이 위협적이라고 생각), 한반도전쟁재현시 駐日美軍基地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오직 극소수 (應答者의 6%)만이 이를 찬성했던 것이다. 現今 駐韓美軍의 撤収가 구체적으로 論議되고 있는 가운데 日本政府는 오직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日本의 輿論은 첫째로, 韓半島에 대하여 더욱 중립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며, 둘째로 北傀와 우리를 實利外交面에서 동등하게 볼 공산이 큰 것이다.

(4) 小 結 論

駐韓美軍의 撤収는 日本의 對外政策의 方向을 轉換시키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는 日本内の 政治勢力構造의 變更과 더불어 나타나는 現象일 것이며 그들의 路線變化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美國에 대한 既存 依存安保姿勢를 變更시키면서 外交的 中

立政策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日本은 駐韓美軍의 撤収를 계기로 中·蘇에 더욱 접근할 것이다. 蘇聯에 대하여는 蘇의 남하정책을 견제하는 一方, 經濟的·社會的 유대강화를 繼續 推進할 것이며 中共에 대하여는 短時日內의 國交樹立을 推進함으로써 極東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日本은 駐韓美軍撤収에 따른 北傀의 對日接近傾向을 政治的으로 이용함으로써 日本과의 敵對意識의 배제 및 國交正常化를 推進할 것이다.

넷째, 日本은 韓國에 대하여 政經分離政策을 그들의 政治的 變動過程에서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

V. 우리의 対応策

駐韓美地上軍의 撤収問題는 國內外의 輿論을 크게 자극한 바 있고 현재 미국의회에서도 찬반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撤収의 時期 및 方法에 관하여는 카아터 行政府가 美議會와 신중히 協議해야 할 사항으로 까지 진전된 바 있으나¹⁷⁾ 地上軍을 撤収한다는 基本原則은 변경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고정화된 것 같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은 日本이 극히 소극적인 자세에서 撤収問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日本의 態度가 무엇에 기인된 것인지를 分析·把握하였으며 日本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合理的인 政策方向을 豫診해 본 바 있다.

지금까지의 分析內容을 우선 綜合評價한 후 이에 따른 우리의 対応策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1) 綜合評價

日本의 國內情勢의 變動과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라는 두개의 獨立變數를 設定하고 日本의 對外政策變化라는 從屬變數를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綜合評價를 추출할 수 있다.

가. 駐韓美軍撤収와 日本國內情勢의 變動

駐韓美軍의 撤収는 日本의 自民黨退潮現象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각각 美國의 對外政策과 日本의 內的政治構

註17) 조선일보, 1977.6.18日字 참조.

造의 變化라는 分離된 두개의 이슈이다. 그러나 이들은 韓國의 安保와 밀접한 相關性을 갖는 가장 重要한 두개의 이슈인 것이다. 우선 駐韓美軍의 撤収는 한국내에서의 勢力空白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既存勢力均衡을 破壞할 위험이 있다. 다음 日本의 保守內閣을 계속 이끌어 온 自民黨勢力이 弱화 내지는 分裂現象을 露呈한다는 것은 그들의 既存安保觀 (安保上的 韓日共同運命意識)이 弱化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韓國의 安保利益을 輕減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 日本의 對外政策變動의 展望

日本의 國內政治構造의 變動과 駐韓美軍의 撤収는 日本의 政策을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變化시킬 것이다.

① 美國과의 政治·經濟的 協力關係를 鈍化시킬 것이며 對美依存安保體制의 탈피를 자극할 것임.

② 中·蘇에 대한 政治·經濟的 関与 정도를 증가시킬 것이며 소련의 南下政策을 政治的 次元에서 계속 견제할 것임.

③ 北傀와의 外交正常化를 계속 추구하면서 南北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더욱 추진할 것임.

④ 韓國과의 安保聯関意識을 배제코자 할 것이며 政經分離의 立場을 더욱 強化할 것임.

(2) 우리의 對策

가. 對日本政策

우리와 日本의 關係는 歷史的으로 볼 때 感情的 갈등관계이

면서도 동시에 地政學的으로 우리의 우방으로서 政治 및 經濟面에서 協助關係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된 양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우리의 安保가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狀況속에서는 전자의 宿命적 關係보다는 후자의 필요적 關係를 더욱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다음의 對日本對應策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日本이 北傀와 國交樹立을 할 경우 우리는 日本과 國交斷絶을 할 것임을 미리 시사해 둔다.

日本의 對外政策變化可能性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日本의 對北傀政策의 變化에 있다고 할 것이다. 日本이 南北間의 등거리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北傀와 國交를 수립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日本과의 직접적 협조관계면에서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北傀의 책동에 의한 우리의 國際的 孤立化라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과 北傀와의 國交樹立의 가능성은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다만 그 봉쇄방법의 면에서 우리가 강경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유는 日本의 立場에서 우리를 잃고 北傀를 얻는 데서 오는 實利上의 손실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서 연유될 수 있는 것이다. 換言해서 日本은 우리와의 既存經濟利益關係를 포기하면서 까지 北傀와 國交樹立을 추구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우리의 強硬政策이 效果的일 것이라는 結論을 내린 것이다.

② 우리는 日本이 北傀의 對美接近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日本에 壓力을 가한다. 北傀는 이미 파키스탄의 부트를 통하여 카아터와의 朝美平和協定締結을 2회에 걸쳐 추진한 바 있으며 美國은 北傀에 대한 美國人 및 美國永住權所有者의 여행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동 속에서 北傀는 美國에 대하여 영향력이 큰 日本을 美·北傀外交正常化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壓力을 가해올 공산이 크며 한편으로 日本은 對北傀接近方法의 일환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美·北傀正常化를 추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향으로 日本에 계속 壓力을 가해야 할 것이다.

③ 우리는 日本内の 親韓勢力으로 하여금 駐韓美軍撤収後 日本의 安保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론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한다.

카아터 政府나 美議會는 駐韓美軍撤収와 관련하여 공히 日本의 安保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거론해 왔다. 그런데 現 日本政府는 이미 반복해서 지적했던 바와 같은 복합적 이유로 撤収에 관해 극히 소극적인 反對意思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효과면에서 이는 美國으로 하여금 駐韓美軍撤収를 迅速化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逆으로 日本이 美軍의 撤収가 日本의 安保에 重大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계속 거론한다면 美國은 撤収計劃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日本内に 이와 같은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各界의 親韓勢力을 적극 자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韓日間の 國民的 理解關係가 증진되도록 적극적으로 政策을 유도한다.

日本の 對韓政策은 그들의 合理的인 實利外交의 일환으로서 形成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一方, 양국민간의 좋지 못한 民族感情이 政策方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에서 1975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반복해서 실시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보면 日本人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은 소련(26%), 北傀(25%), 韓國(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결과는 韓·日間の 좋지 못한 歷史에 기인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더욱 현실적으로는 양국민간의 沒理解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日本人들의 對韓認識觀을 높이기 위하여 政府는 弘報活動을 強化할 뿐만 아니라 反韓政治人, 學者, 企業人 및 여론조성자들을 韓國에 방문하도록 적극 추천할 것이며 각종 學術討論을 통해 양국민의 相互理解程度를 계속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나. 外交의 多邊化

駐韓美軍의 撤収는 우리의 安保面에 큰 問題點을 던져주는 一方 우리의 自主的 外交立場을 高揚시켜 주는 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美地上軍이 撤収하게 되면 非同盟國들과의 外交關係가 상대적으로 보다 호전될 소지가 마련되는 것이며 공산권국

註 18) U.S. Information Agency, op.cit., p.3 參照.

가들과의 관계정상화가능성도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보겠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外交政策方向을 提示한다.

① 非同盟國들과의 관계개선과정에서 駐韓美軍撤収가 우리에게 주는 安保的 내지는 外交的 意味가 무엇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적 지지를 획득한다.

② 北傀가 對美·日接近政策을 강화하는 것에 부응하여 우리도 對中·蘇接近政策을 강화한다. 이는 美國의 外交的 能力을 최대한도로 動員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個別的 中·蘇接近政策의 구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成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다.

③ 우리의 既存對西方關係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軍事的 經濟的 面에서 對美·日 일변도적이었던 우리의 立場을 刷新한다. 이로써 우리가 美國과 日本에 갖는 軍事·經濟面에서의 저자세적 입장을 탈탈피할 수 있으며 그들과의 實利外交關係를 活性化할 수 있는 것이다.